

기고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 응급처치의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급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집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는 가족 등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이며, 광범위한 농촌 지역과 섬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마을 공동체 문화가 강하고, 주민 상호 간의 유대감이 깊어 응급 상황에서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과 젊은 세대가 밀집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유동 인구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농촌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이 이뤄질 경우 생존율은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응급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잘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으로 응급처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시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나주소방서는 나주시민을 포함한 전남 도민 모두가 응급처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마을회관, 복지시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전남은 사람과 사람이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소방서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소방서장 신항식

요즘 SNS 유튜브 다양한 매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처럼 실재 없이 나돌아 공산주의 속성인 독재 프레임의 발로입을 알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14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에 선출되었고, 2022년 10월 마오쩌둥 이래 최초로 3연임이 확정되면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중국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에 만든 다음에 27년 통치하면서,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수천 명의 인민들의 기근 희생과 역사와 유물 파괴행위, 가치관 혼란 등을 목격했다. 이에 덩샤오핑은 “1인 독재는 절대 반대한다!”라면서 국가 주석, 공산당 주석을 절대 거절하였다. 다만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 하나만 차지하며 통치하였다. 그리고 집단지도 7인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어 공산당 시스템에 민주적 요소를 가미했다.

덩샤오핑은 주석 임기는 1회 5년 연임해서 10년 하도록 법제화시켰다. 이 제도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지켜왔다. 그런데 2022년 시진핑 현 주석이 헌법을 개정해서 3년 이상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중국 일부 지식인들은 ‘시황제 즉위’라며 반대했지만, 시진핑의 3연임이 이어지면서 중국경제와 청소년 실업률, 부동산 등 약세가 계속 이어졌고, 작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진핑은 왜 실각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중국 시진핑호가 침몰하고 있다

설이 나돌까! 국내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시진핑의 퇴임설, 실각설은 다 실체도, 정확한 팩트도 없이 외신 보도와 다양한 매체에서 게재된 내용을 과장하거나, 짜맞추식 보도가 횡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의 실각설이 등장한 것은 주로 군(軍) 내부의 조직에 뚜렷한 이상기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테면 중국 공산당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다. 7인 상무위원회집단지도체제로 유지해 왔는데, 이 중에 부주석 2명이 장유사(張又俠·75)와 허웨이둥(何衛東·68) 두 사람이 시진핑을 좌우에서 받쳐주고 있다. 그런데 허웨이둥 부주석은 타이베이 침공 작전을 담당 동부전구 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또 시진핑의 측근인 쉬치량(공군 사령관) 장군과 공청당 출신인 시좌진(習家軍·시진핑 측근) 장군이 사라졌다. 시진핑 중심의 숙청 작업을 주도한 마오와(郝剛) 정치국원은 이미 실각하고, 중국 항공우주공학자 리샹푸 장군도 이미 사라졌다.

또 해외 일각에서 당내 인사 변동과 시진핑의 BRICS 정상회의 불참 통보, ‘당 중앙의사결정협조기구’ 신설, 시진핑 영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이 심은 마상루이(馬興瑞) 정치국원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권력 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시진핑 측근 세력이 근래에 숙청 내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러 언론에서 시진핑의 실각설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권력층은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의 3대 파벌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3대 파벌은 우리나라 정지구조로 보면 정당과 유사하다. 정당의 힘이 강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듯이 중국 파벌도 힘이 있어야 최고 권력자가 되는 데 유리하다.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건국 세력들의 자제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이다. 초창기에 핵심 멤버 800여 명의 아들 손자들로 이어진 엘리트 집안이다. 시진핑도 아버지가 부총리를 지낸 핵심 원로로 승승장구한 태자당 출신이다.

공청당은 공산당 청년위원회의 약자이며 농촌 변방에서 백그라운드 없이 자수성가 한 인물로 중국 흑수저 출신이다. 공산당에 가입하기 전에 청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며 숫자가 많아 파벌 1위를 형성하며 후진타오 주석, 리커창 부주석의 인물이다.

상하이방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회로 상하이시 당서기를 맡은 장쩌민이 총서기에 오르면서 만든 세력이다. 베이징 중앙 정계에 기반이 없어 같이 근무한 상하이시 지역 인사를 대거 등용한 인물로 지금은 그 세력이 약화되어 ‘지는 해’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은 문화혁명 이후 공산당 입당 원서를 냈지만, 10번이나 부적합 판정받았다가 겨우 입당(1973)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태자당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계파가 소수였다. 그래서 시진핑이 근무했던 허베이성 출신들 중심으로 결성하여 만든 것이 시파(習派)이다.

시진핑은 7인 상무위원회집단지도체제를 시파(習派) 출신 중심으로 등용함으로써 3파 세력이 등용에서 제외된 반감은 물론, 이들은 틈이 허락되면 과감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매일 언론에서 시진핑의 실각설에 대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군부 권력을 잃은 것 외에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8월 4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이목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호가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평온하게 항해할 것인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음력 6월 22일)

48년생 아이야 면장 공리하고 공부하자 60년생 정성을 들였으면 결과를 믿어보자 72년생 경학한 예측으로 백점을 받아 84년생 조적의 중심 대장노릇 해야 한다 96년생 마냥 고맙고 기쁜 소식으로 들어보자.

49년생 놀자 하는 잔치 출사유가 절로 난다 61년생 등 떠밀린 김두 꽃방석이 갈려진다 73년생 살짝 서운함, 시간으로 지워내자 85년생 혼자 하는 지랑 장수만 깎여진다 97년생 여가치 반대경담임을 알아보자.

50년생 기쁜 송머머고 기쁨을 다시 하자 62년생 감사함이 담겨진 선물 물물 받아보자 74년생 수줍은 고백 서로에게 전해진다 86년생 후회는 없지만 작고 초라해진다 98년생 여럿 중에 으뜸 귀한 대접 받아보자.

51년생 약속을 파하는 겁쟁이 되어보자 63년생 인연이 아닌 것에 미련 남기지 마라 75년생 고생한 보람 주마. 가 든든하다 87년생 단단한 결심은 완성이 되어간다 99년생 여러가지 경험 차곡차곡 쌓여간다.

52년생 절대 겸손 하늘 높은 줄 알아서 64년생 편하지 않은 거절 원망을 들어보자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뒤에 숨어보자 88년생 밤이 이룬다는 축히 받아보자 00년생 비교대상이 아닌 홀로서기 해보자.

53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변화를 가져보자 65년생 애설은 용기 체면을 구겨야 한다 77년생 장사로 하지 마라. 신리가 우선이다 89년생 버리고 버릴 내가지꺼와 맨. 나간다 01년생 꿈같은 순간이 현실이 되어준다.

54년생 몸 건강 마음 건강 기분이 날아간다 66년생 정겨운 얼굴들 주역으로 돌아와 78년생 괜히 하는 수고 품수도 못 건진다 90년생 거침없이 직진 앞만 보고 달려가자 02년생 사기치지 않아도 묵묵히 도와야 한다.

55년생 후회 하는 기대 모양만 빠져간다 67년생 기쁨이 자 원하던 소식을 들어보자 79년생 사람사 생각 말고 재미를 찾아보자 91년생 꿈꿨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 03년생 경의는 이긴다. 약자편에서 사야 한다.

56년생 혼란 것도 쓰임새는 구해야 한다 68년생 아랑 시작인 거 큰수부에 나서보자 80년생 주머니가 가벼워도 비싸게 굴어보자 92년생 욕심이 아닐까 고민을 더해보자 04년생 비우고 채워지고 단계를 거쳐보자.

57년생 동업자 제안 두 팔 벌려 안이주자 69년생 오랜 기다림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81년생 자신감 배가 되는 용인을 받아보자 93년생 말이 나행동 고급화를 가져보자 05년생 부족한 건 사실 차선으로 돌아서자.

58년생 고향 맛 음식이 피곤을 달래준다 70년생 불안했던 긴장 웃음으로 끝나진다 82년생 하늘이 내린 기쁨의 날개가 펼쳐진다 94년생 못난 책임회피 꼬리가 달려간다 06년생 연습했던 순위를 차분히 떠올리자.

47년생 일타가 보아된다. 열심히 땀 흘려보자 59년생 강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진다 71년생 실망감이 규모 크고 화려해진다 83년생 거짓이 라 쓰인 유혹이 다가간다 95년생 실패도 과정이다. 겸허히 수용하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